

# “민선시장, 허수아비 전략”... 오세훈, 자치경찰제 비판

(서울시장)

자치경찰 출범 100일 입장문  
“경찰 인사에 시장 관여할 수 없어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것 부당”



오세훈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son@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음에도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꼬집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1명

이고, 경찰 인사에 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줄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한다”며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태생적인 한계가 크고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1명,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구청장협의회·구의회의장협의회·법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라고 하나,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면서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부서로 돼 있는데 이런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가락시장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처하면서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 지휘권이 없어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 낭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를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으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권한 없이 시장에게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경찰청의 일부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교통안전 위협’ 무법 오토바이 특별 단속

서울시,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차 단속  
자동차관리법 따라 형사처벌·행정처분



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3개월간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훼손, 무단방치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와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을 어긴 이륜자동차 633대를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은둔청년에 진로 지원프로그램

모집인원 보다 3배 넘는 청년 몰려  
서울시는 사회 진출이 어려운 고립청년과 집박에 나오지 않는 은둔청년 총 232명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9월 말까지 총 648명(고립청년 518명, 은둔청년 130명)이 신청, 모집계획(2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청년이 몰렸다. 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공공·민간기관, 유관 전문단체와 연계해 지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을 공식 모집기간뿐 아니라 상시 발굴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화 프로그램은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구직 단념 상태인 저소득 고립청년에게 진로탐색과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해당 프로그램에 518명의 고립청년이 신청했는데 이는 전년(195명)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고립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기탐색, 관계형성 프로그램, 소그룹 커뮤니티, 자기계발, 진로 재탐색, 생활영역 및 진로컨설팅, 마음건강 상담으로 구성됐다. 고립청년 맞춤형 사회 진입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와 가정에서 정서적 갈등·트라우마를 겪는 은둔청년이 집밖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립감·좌절감으로 사회적 단절 생활이 긴 은둔청년 70명을 발굴·지원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은 은둔청년이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적 접촉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취미 및 체험 활동, 당사자 모임, 은둔하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 아카데미 등이 마련됐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초등학생에 공연관람 지원

서울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서울 소재 69개 초등학교 9151명을 대상으로 뮤지컬·연극·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관람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은 학급당 버스 1대를 배정받아 초등학교와 공연장을 왕복 이동한다. 공연장 입장 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객석 한 좌석 띄워 앉기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21개 공연작품은 학생들에게 배려, 공감, 생명 존중, 이타심 등 교육적인 내용을 유쾌하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 학교재 아트센터서 김용일 작가 개인전

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사이의 무수한 삶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집을 매개로 현대인과 소통하는 김용일 작가의 열세 번째 개인전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교재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소박한 순간의 가치’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낮의 이야기’ 작품 <지산>, <송산리>, <오남마을>을 비롯해, ‘밤의 이야기’ 작품인 <병산리\_달빛>, <송하네집\_설밭>, <월평마을\_설밭> 등 30여점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 김용일 작가는 “나의 작품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행복한 기억이 그곳에 있었고, 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으며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작업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 시내 주거지 밀집지역에 가로등·블라드형 충전기 설치

서울시는 빌라, 연립주택 등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가로등형 충전기와 블라드(단주)형 충전기 10대를 연내 설치한다고 12

일 밝혔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슬림한 외형의 50kW 급속 충전기로, 한 시간 만에 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블라드형 충전기는 설치 면적이 약 0.06㎡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완속충전기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8 | 해질 / 17:58

10월 13일 (수)  
음력 : 9월 8일

수도권 날씨  
15 ~ 25°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외출 지수: [진행률 막대]

지역별 날씨: 연천 10/24, 동두천 11/24, 가평 11/23, 파주 11/24, 서울 15/25, 양평 12/25, 용인 15/24, 수원 15/24, 평택 13/25, 백령도 15/21, 인천 15/24, 인천 10/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제유가가, 7년만에 최고치...에너지 위기 고조  
▲쿼드 4개국, 2차 합동 군사훈련 돌입 /사진 뉴시스

▲중국, 광우병 우려에 영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싱가포르서 韓남성 몰카찍다 적발...신상공개



▲리비아 근해서 불법이민 187명구조, 시신 16구 수습  
▲캘리포니아 산불지역, 3만4000가구 전력 끊겨 /사진 뉴시스